사시사철 연례행사 된 AI, 언제까지 살처분만 할건가

'겨울 전염병' 봄·여름에도 발생…15년간 피해액 1조원
축산농가 예방백신 시범적용 등 근절대책 촉구 목소리
순천만 2주 지나도록 유전자변형 발표 안해 불안감 확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처음 발견때는 겨울철 전염병이었지만, 2015년부터는 봄·여름·가을할 것 없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 바이러스도 변형을 거듭해 치명성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검역당국은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닭·오리와 철새를 분리·차단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오리는 살처분하는 것이 기본 대책이지만 이것만으로는 AI를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예방백신 시범 적용 등 새로운 대책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까닭이다.

◇15년간 피해액 1조원=우리나라에서 AI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때는 2003년이다. 나주를 비롯해 전국 10개 시·군에서 19건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392농가에서 528만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돼 87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잠잠하던 AI는 2006~2007년 5개 시·군에서 13건이 발생했고, 다음해부터는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만 발견되던 AI 바이러스는 2008년에는 봄에 찾아왔다. 2015년엔 전년 9월에 발생했던 AI가 다음해 6월까지 260일간 지속됐다가 가을에 또 다시 발생했다. 계절성이 아닌 연중 감염병으로 확대된 것이다.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06~2007년 겨울 339억원이던 피해액은 2008년 1817억원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14~2015년 2975억원, 2016~2017년 3107억원으로 급증했다. 2003년 최초 발생 때부터 올해까지 15년간 피해액은 무려 1조원(9919억원)에 육박한다.

◇늦어지는 결과 발표에 불안=바이러스는 변형을 거듭하며 더욱 강력해졌다. 2003년부터 10년간 H5N1형만 발견되던 바이러스는 2014년 H5N8형이, 지난해엔 H5N6형이 새로 나왔다. 올해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서 발견된 유전자는 H5N6형이지만 한 단계 더 변형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순천만 AI 바이러스는 고창 오리농가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상호 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걸려 발표가 지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 오리농가 AI 바이러스는 작년 말 유럽에서 유행한 H5N8형 AI와 유럽지역의 야생조류 저병원성 H3N6형 AI가 재조합돼 형성된 새로운 H5N6형이다. 검역본부는 두 개 바이러스가 재조합해 새로운 유형의 H5N6형 AI가 형성됐고, 올해 10월 이후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순천만 AI도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이어서 동일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확정 판정 후 2주가 지났는데도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출현과 '인체 감염'이라는 공포가 결합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발표 지연은 정부 부처의 이원화 때문으로 알려졌다. 가금류는 농식품부가, 철새는 환경부가 담당하다 보니 양 기관의 검증 교류 절차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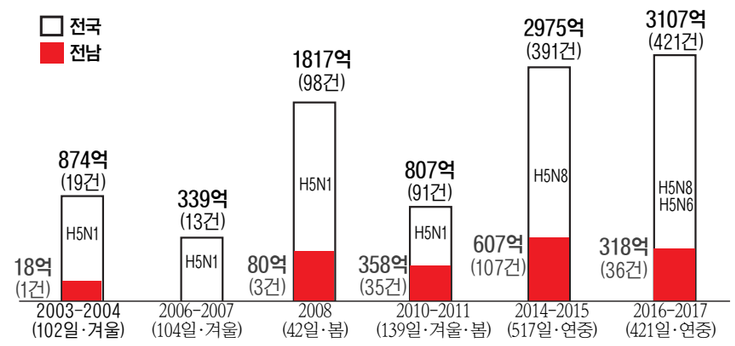
◇오리농가 25호 추가 휴업=전남도는 AI 차단을 위해 휴업보상을 통한 가금농가 사육제한 조치를 확대했다.

지난달 오리농가 27호에 이어 이달부터 오리농가 25호를 추가해 사육을 제한한 것이다.

2차 제한 대상은 철새도래지 3㎞ 이내 농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 농가 및 주변 500m 이내 농가다. 지역별로는 나주 7농가, 장흥 6농가, 무안 5농가, 구례 3농가, 해남 2농가, 영광·순천 각각 1농가 등이다. 이들 농가에는 4개월간 휴업 보상을 위해 과거 1년간 평균 사육 마리당 510원(2회분)의 보상금을 지원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달 21일 순천만 등 전남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폐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및 피해액



문 닫힌 순천만습지 4일 남해안 최대 규모의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습지를 방문한 탐방객들이 발길을 되돌리고 있다. 철새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순천만습지는 지난달 21일 폐쇄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취임 100일 안철수 대표 "튼튼한 3지대 만들 것"

통합 의지 거듭 밝혀
호남중진들 조찬 회동
통합 둘러싼 갈등 확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로서 가장 큰 책무는 당을 살리는 것"이라며 "창당 정신을 확대하는 튼튼한 제3지대를 만들어 다당제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은 새로운 인물이 대거 합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심을 잡고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 수권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정책연대를 통해 과연 (바른정당과) 얼마나 생각이 같은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 대표의 발언은 다당제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외연 확대 방안으로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것과 관련, "물 온도가 10도나 99.9도나 밖에서 보기에는 같지만, 99.9도가 되면 0.1도 차이로 끓는다"고 비껴갔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기득권 양당의 반대가 심하다"면서 "소선거구제만 바꿀 수 있으면 중대선거구제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조선대 강연을 앞두고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서 안 대표를 겨냥해 "지역주의를 조장해 정치적 이득을 취해 온 영남 패권세력에 대한 투항을 영호남 통합이라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촛불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전 대표도 광주MBC 라디오에 출연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통합에 국민의당 40석 의원이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며 "안 대표가 통합만 거두면 당이 분열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호남 중진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당의 진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통합 반대 모임인 '평화개혁연대'는 이르면 오는 6일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세를 규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날선 발언을 주고받기도 했다. 먼저 반 통합파인 박주현 최고위원이 "항간에 떠도는 합당 시나리오가 국민의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자 친(親)안철수계 최명길 최고의원은 "최고위는 소문이나 언론 보도, 가십에 응답하는 기구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은 최고운영위원회의에서 "2000년대 초 당시 40대였던 천정배·신기남·정동영 세 분이 정풍운동으로 동교동 기득권에 과감하게 저항하고 변화를 요구했다"며 "그 주역들이 이제 동교동계와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안 대표 측은 4일 통합 찬성파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주축이 된 모임의 출범을 잠정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수산품·화훼 선물액
국민 10명중 6명 10만원까지 허용 찬성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각각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일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에 6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반대한다'(27.5%)는 답변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잘 모르겠다'는 9.2%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2.5%, 17.0%)에서 찬성률이 70%를 넘었다. 광주·전라(66.0%, 25.3%), 대구·경북(65.4%, 20.3%), 부산·경남·울산(64.8%, 32.2%)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63.5%, 26.2%)과 경기·인천(59.9%, 32.6%) 등 수도권에서도 찬성률이 60%를 넘거나 근접했다.

리얼미터는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과 대부분의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며 "이는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를 위한 예외조항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11월 5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1.5%를 기록하면서 5주 연속 7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인 251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71.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4%p 오른 22.8%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5.7%로 나타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www.daewontour.com

코스1 울산 간절곶 새해 일출열차 성인·경로 99,000원 | 어린이 79,000원

날자	교통편	시간	일 정	식사
제1일 12/31 일	무궁화호	22:58	▶목포역(22:30경) / 나주역(23:10경) / 광주송정역(23:20경) 집결 후 탑승권 수령 ▶목포역(22:58경) / 나주역(23:37경) / 광주송정역(23:50경) / 서광주역(00:02경) / 효천역(00:07경) / 화순역(00:23경) 출발 ※ 열차 출 · 도착 시간은 예정 시간이며, 확정 열차시간은 출발 2일전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철도 운행명령이 출발 2일전에 나옵니다.)	석:×
제2일 1/1 월	버 스	05:03 05:40 09:00 10:00 11:40 12:00 13:30 14:00 15:30 15:50 16:30 17:00	▶남창역 도착 후 출발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일찍 뜨는 곳으로 유명한 간절곶 도착 후 일출 및 관광 (일출 예정시간 07시 32분) – 해맞이 행사 : 포토존(소망탑&띠조형물, 소망트리), 희망 떡국나누기, 희망풍선 날리기 – 주요관광지 : 간절곶 등대, 모녀상, 미술조각품, 새천년 기념비, 소망우체통 등 ▶간절곶 출발 ▶옛선비들이 바다의 금강산, 해금강이라 불리우는 대왕암 도착 후 관광 ▶대왕암 출발 ▶일산해수욕장 도착 후 자유중식 ▶일산해수욕장 출발 ▶울산의 대표 생태공원인 태화강 십리대숲 도착 후 도착 ▶태화강 십리대숲 출발 ▶울산 중앙전통시장 도착 후 자유시간 및 석식준비 ▶중앙전통시장 출발 ▶태화강역 도착	조:× 중:× 석:×
	무궁화호	17:20 23:24	▶태화강역 출발 ▶화순역(22:00경) / 효천역(22:16경) / 서광주역(22:21경) / 광주송정역(22:35경) / 나주역(22:46경) / 목포역(23:24경) 도착	

코스2 정동진일출 · 월정사 열차 성인·경로 120,000원 | 어린이 90,000원

날자	교통편	시간	일 정	식사
제1일 1/5 금	무궁화호	22:58	▶목포역(21:30경) / 광주송정역(22:10경) 집결 후 탑승권 수령 ▶목포역(21:58경) / 나주역(22:34경) / 광주송정역(22:45경) / 장성역(23:01경) / 정읍역(23:20경) / 익산역(23:46경) ※ 열차 출 · 도착 시간은 예정 시간이며, 확정 열차시간은 출발 2일전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철도 운행명령이 출발 2일전에 나옵니다.)	석:×
제2일 1/6 토	도 보 버 스	06:00 08:10 09:30 10:30 11:30 12:10 12:30 14:00 15:00	▶정동진역 도착 정동진 자유시간 및 자유조식(일출예정시간 07시 39분경) 모래시계 공원 (시계탑, 십이지상) 모래시계(고현정)소나무, 정동진 시비, 정동진 해수욕장 및 자유조식 ▶정동진역 앞 집결 후 주차장 이동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월정사 전나무 숲길 도착 후 자유관광 ▶월정사 주차장 출발 ▶몸도 마음도 모두 내려놓고 쉬어간다는 의미를 갖은 휴휴암 ▶도착 후 관광 ▶휴휴암 출발 ▶주문진어시장 도착 후 자유중식 ▶주문진어시장 출발 ▶동해역 도착	조:× 중:× 석:×
	무궁화호	15:30 23:03	▶동해역 출발 익산역(21:14경) / 정읍역(21:41경) / 장성역(22:01경) / 광주송정역(22:16경) / 나주역(22:28경) / 목포역(23:03경) 도착	

코스3 태백산 눈꽃 등반·하이원스키장 열차 성인·경로 120,000원 | 어린이 90,000원

날자	교통편	시간	일 정	식사
제1일 1/26 금	무궁화호	22:12	▶목포역(21:40경) / 나주역(22:10경) / 광주송정역(22:30경) 집결 후 탑승권을 수령 ▶목포역(22:12경) / 나주역(22:48경) 출발 / 광주송정역(23:00경)/ 장성역(23:15경) / 정읍역(23:35경) / 익산역(00:00경) 출발 ※ 열차 출 · 도착 시간은 예정 시간이며, 확정 열차시간은 출발 2일전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철도 운행명령이 출발 2일전에 나옵니다.)	석:×
제2일 1/27 토	버 스	04:39 05:00 06:00 12:00 13:00 15:30 15:50	▶태백역 도착 / 태백역 출발 ▶당골광장 도착 ▶식당 배정 및 식사 (산행준비) ▶당골광장 출발 / 유일사 매표소 도착(06:20) ① 태백산 등반팀 (등산소요시간 약 4시간소요) (유일사 입구 주차장(해발 900m) → 장군봉 → 천제단(해발1567m)→ 단종비각 → 용정(해발1470m) → 반재 → 석탄박물관 → 당골광장 ② 태백산 관광팀 단군성전, 석탄박물관, 눈썰매장(개인부담)→당골광장 당골광장 도착 후 자유시간 및 자유중식 ▶당골 광장 제2주차장 출발 / 하이원 스키장 도착 ▶하이원 스키장 도착 후 관광 곤돌라 탑승 및 자유중식 – 총 3회 탑승 (하이원호텔→마운틴탑 전망대 → 마운틴콘도 → 밸리콘도 하늘주차장) ▶하이원 하늘주차장 출발 ▶고한역 도착	조:○ 중:× 석:×
	무궁화호	16:08 22:26	▶고한역 출발 익산역(20:36경) / 정읍역(21:03경) / 장성역(21:23경) / 광주송정역(21:38경) / 나주역(21:50경) / 목포역(22:26경) 도착	

코스4 정동진 일출·하이원스키장 열차 성인·경로 120,000원 | 어린이 90,000원

날자	교통편	시간	일 정	식사
제1일 1/26 금	무궁화호	22:12	▶목포역(21:40경) / 나주역(22:10경) / 광주송정역(22:30경) 집결 후 탑승권을 수령 ▶목포역(22:12경) / 나주역(22:48경) 출발 / 광주송정역(23:00경) / 장성역(23:15경) / 정읍역(23:35경) / 익산역(00:00경) 출발 ※ 열차 출 · 도착 시간은 예정 시간이며, 확정 열차시간은 출발 2일전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철도 운행명령이 출발 2일전에 나옵니다.)	석:×
제2일 1/27 토	버 스	04:39 07:00 09:00 10:00 11:00 13:00 15:30 15:50	▶태백역 도착 후 버스 탑승 및 이동 ▶정동진역 옆 주차장 도착 정동진 자유시간 및 자유조식(일출 예정시간 07시 37분경) (모래시계공원(시계탑, 십이지상), 모래시계(고현정)소나무, 정동진 시비, 정동진 해수욕장 등등) ▶정동진역 집결 후 주차장 이동 및 출발 ▶애국가 첫소절의 배정의 추암 촛대바위 해수욕장 주차장 도착 후 관광 ▶추암 촛대바위 주차장 출발 ▶하이원 스키장 도착 후 관광 곤돌라 탑승 및 자유중식 – 총 3회 탑승 (하이원호텔 → 마운틴탑 전망대 → 마운틴콘도 → 밸리콘도 하늘주차장) ▶하이원 하늘주차장 출발 ▶고한역 도착	조:× 중:× 석:×
	무궁화호	16:08 22:26	▶고한역 출발 익산역(20:36경) / 정읍역(21:03경) / 장성역(21:23경) / 광주송정역(21:38경) / 나주역(21:50경) / 목포역(22:26경) 도착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현대자동차빌딩 옆)

후원 | KORAIL 광주본부 울산광역시